

# ‘상임위 독식’ 與, 공수처로 직진할까?

## 이해찬 “특단 조치로 신속 출범” 민주 주류 분위기 강경

## 김영진 “개정 고려 안해”...野 “밀어붙이면 방법 없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야당의 ‘의회독재’ 프레임에 느낀 여당이 선(先)추경 처리 후 공수처 출범은 다소 숨 고르기하려는 듯한 분위기도 엿보인다. 다만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공수처법 개정 강공을 이어갈 것이

란 전망도 적지 않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수처 출범과 관련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이 공수처법 개정에 선을 그은 것은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얼어붙은 정국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원내협상 실무 책임자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의 분위기는 강경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 차례 요청한 추경과 공수처법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 판사 출신 박법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제때에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된다”고 가세했다.

이같은 개정 추진론은 공수처 출범에 비협조할 경우 그나마 갖고 있는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은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추천위원 중 야당 몫은 2명이다. 이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 여당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선임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또한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야당과의 관계 개선은 공수처 등 숙원 과제를 처리한 뒤 차차 풀어가면 된다는 계산이 말바탕에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PK지역 미래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마저 깨버리고 독식한 거대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야당과 깊이 있게 협의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도 다 공수처 때문 아니겠느냐”며 “책임지겠다”는 말로 합리화하며 밀어붙이면 법사위를 뺀 야당이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가 때리자 지지율 10% 넘은 윤석열... “이런 총장 처음”

### 홍준표·황교안·오세훈 제치고 야권 주자 1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0% 지지율을 기록, 단숨에 야권 후보 선두에 섰다.

현재 야권 대선주자들이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연일 대치하며 정권과 대적점에 선 윤 총장이 보수 유권자들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오마이뉴스 의뢰,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37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9%p)에 따르면 윤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0.1%를 차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의원(30.8%)과 이재명 경기지사(15.6%)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은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에서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다른 여론조사를 모두 포함해 윤 총장이 두자릿수를 얻은 것은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 등 3강구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다른 대선주자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5.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4.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9%, 원희룡 제주지사 2.7% 등으로 뒤를 이었지만 윤 총장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윤 총장을 선택한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윤 총장은 이념 성향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다른 야권 후보들의 지지층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임명한 현 정권의 고위 공직자가 야당 대선후보로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윤 총장은 보수층(15.9%)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중도층에서도 12.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진보층에서는 4.3%가 윤 총장을 선택했다.

권역별로 윤 총장은 보수가 가장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14.1% 지지를 얻었으며 연령별로 60대에서도 17.9%, 70세 이상에서도 8.8%를 얻어 다른 야권 주자들을 압도했다.

특히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계속되는 비판 등 윤 총장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심화할수록 윤 총장에 대한 야권 성향 지지층의 출몰 현상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야권 잠룡 윤석열”을 바라보는 통합당의 속은 썩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현 정권과 거침없이 일전을 벌이는 윤 총장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가 야당의 기성 정치인들을 모두 쫓아내듯 만들 정도로 부상하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으로서 민망한 일인 것이다.

통합당의 한 3선 의원은 “출마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 구도가 잡히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다른 관계자는 “현 정권과 대적점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지지율은 가벼운 수치가 아니다”며 “더구나 통합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당의 부정적 이미지가 없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결위, 미래통합당 불참 속 3차 추경 심사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대상지 순천” 노승일, 민생당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임명

소병철 민주당 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전남 순천시 매곡동 일원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을 설계하

는 것뿐만 아니라 순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서도 가산점을 받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효과가 있다.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 소관 사업인 셉테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최순실 저격수’로 불린 노승일은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민생당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지난달 30일 민생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민생당은 최근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를 선거구에 출마한 노 전 부장을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노승일 위원장 직무대행은 “4·15 총선 패배 이후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4·15 총선의 패배를 통렬히 반성하고 성찰해 민생당 광주시당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민생당의 심장이다”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을 다지는 조직 정비와 정책발굴을 최우선으로 놓고 당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당 광주시당의 혁신을 뒷받침할 과제로 “민생중심과 평화주의, 민주개혁으로 정했다”며 “코로나19로 파탄난 민생경제 회복과 최근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